



섬진강 이웃 구례·광양· 하동 영호남 화합행사 개최

내달 3일 구례군 주관 남도대교서 화합 의미 다져



섬진강을 중심으로 이웃사촌으로 생활권을 함께하는 구례, 광양, 하동 3개 시군은 오는 11월 3일 섬진강 남도대교에서 영호남 화합행사를 개최한다. 지난해에는 출마리기로 승부를 겨루었지만, 올해는 화합의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 떡메치기

를 할 계획이다.

남도대교는 구례·광양·하동을 연결하기 위해 섬진강을 건너는 다리로, 3개 시·군 생활권을 하나로 이어주는 상징적인 장소이다. 2015년 하동 섬진교에 이어 2016년에는 광양시 주관으로 이곳 다리에서 출

다리기를 하며 화합행사를 개최한 바 있다. 매년 3개 시·군 교류행사로 확대되어 올해는 구례(지리산피아끌란축제추진위원회) 주관으로 개최된다.

이번 행사는 3개 시·군의 시장·군수, 국회의원, 기관 및 사회단체장, 지역주민 등 400여 명이 참가해 다리 위에서 떡메치기를 하고, 떡을 잘라 다 함께 나누어 먹는 행사로 치러진다.

3개 시·군 각각 올해의 햅쌀을 재료로 해서 떡메치기를 하면서 올해의 풍요를 축복하고, 지역주민들이 직접 떡을 자르고 나누어 화합의 의미를 다질 계획이다.

한편, 구례군 관계자는 “이번 행사기간에 남도대교 차량통행이 전면 금지될 예정”이라며, “행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역 주민들 및 관광객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김승호 전남동부취재본부장

함평군, 규제개혁 TF팀 확대 운영

6개 분야 공무원·유관기관·민간전문가 등 20명 내외 구성

함평군은 기존의 부서업무 위주로 규제개혁 TF팀을 확대, 제편성해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군민 불편사항을 해소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현장주의의 규제개혁을 적극 전개하기 위해서다.

이번에 확대하는 규제개혁 TF

팀은 규제개혁담당을 단장으로 투자유치 및 일자리 창출, 기업 도시개발, 농어촌 활성화, 해양관광, 신림개발 등 6개 분야로 나눠 공무원, 유관기관, 민간전문가 등 20명 내외로 구성된다.

TF팀은 일자리 창출 등 정부시책과 연계, 기업투자나 산업단지 조성에 장애가 되는 요인, 행정편

의적 규정 등 기업 활동이나 주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사례 등을 본격 발굴할 방침이다.

이와 병행해 기업 간담회, 군 누리집 등을 통해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국내외 선진사례를 도입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법령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정부에 건의하고 군 차원에서 개선 가능한 사항은 직접 개선하는 등 적극적인 규제개혁을 추진한다.

함평=김광훈 기자

영광군, 임도 및 등산로 정비사업 순조

영광군은 지난 3월부터 현재까지 군민의 행복한 삶 공간 조성을 목표로 2억 8천여만원을 투자하여 관내 임도 및 주요 등산로의 시설물을 정비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 등산종합안내도 7, 관광도 1, 망원경 2, 정자 6동, 이정표 35개, 등의자 19개, 간이 테이블 2개, 구조물 보수 및 도색 3개소, 안

전 로프 3개소 405m, 황토길 포장 230m, 산길복원 2개소 470m 등 총 73개 편의시설을 실시하였다.

이외에도 주요 등산로 정비를 위하여 단풍나무 500주, 편백 100주, 등백 130주, 배롱나무 130주, 덩굴 장미꽃 3종 350주를 식재하여 등산로를 퀘적한 주민의 휴식공간으로 조성하였다.

영광=서희권 기자

2017년도 임도 및 등산로 주변 정비사업은 21지구 80여개 사업으로써 영광군 개청이래 최대 규모로 앞으로도 영광군에서는 1억 2천만원을 더 투자하여 11월말까지 장암산 등 임도구간에 단풍나무 1,000그루를 식재하고 대소형 등산 암보도 9개소, 이정표 6개 등을 정비하여 영광군민들이 산행과 등산을 통해 많은 행복감을 느끼도록 할 방침이다.

영광=서희권 기자

보성군,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비수급 빙곤층 해소 위해 내달부터 적용

보성군은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따라 빙곤 시각 지대 해소를 위해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을 다음달부터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군은 지난 24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읍·면 복지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교육’을 실시했다.

부양의무자가 있어 수급자가 되지 못한 취약계층인 비수급 빙곤

의무자 가구 모두에 노인이나 중증 장애인이 포함되어 있으면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을 제외해 생계·의료·주거급여를 지원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와 별맞춰 비수급 빙곤층 해소를 위해 흥보와 대상자 발굴을 적극 추진하여 군민이 행복한 보성을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보성=안구일 기자

고흥군, 맥류 적기파종 현장 기술지도에 나서

이달 하순부터 11월 상순까지 적기…10a당 10~15kg



고흥군은 겨울철 맥류 재배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맥류 적기파종 현장 기술지도에 나섰다.

맥류를 너무 일찍 파종하면 옷자라 겨울이 오기 전에 어린 이삭이

생겨 얼어 죽기 쉽고, 너무 늦게 파종하면 어린잎이 피해를 받아 얼어 죽거나 가지치기가 늦어 짙기지수가 적어지므로 월동 전에 일어 5~6매가 나을 수 있도록 10월 하순부터 11월 상순까지 파종할 것과 파종량은 10a당 10~15kg을 파종할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겉껍부기병, 줄무늬병, 병해 예방을 위해 종자소독이 안 된 종자의 경우 반드시 소독하여 파종하도록 하였다.

한편 농업기술센터 농기계임대사업소에는 맥류종자를 파종과 동시에 골까지 벌 수 있어 노동력이 50% 절감되고, 종자도 절약할 수 있는 트래터 부착형 줄뿌림 파종기 확보하고 있어 기계 파종을 원하는 농업인이 언제든지 임대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맥류 적기파종, 종자소독, 단위 면적당 파종량 등을 준수하여야 맥류 안정생산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승호 전남동부취재본부장

가을의 절정, 오색 애기단풍으로 즐긴다

오는 27일~29일 백양사 일원서 ‘장성백양단풍축제’ 개최



린 단풍무대와 단풍술 음악회 2곳에서 진행된다.

통기타와 색소폰 등 관람객들이 오며가며 즐길 수 있도록 열리고, 시화전과 사진전, 칼라그리피 전시

도 함께 관람할 수 있다.

매년 큰 인기를 모은 체험행사도

알차게 마련했다.

▲국립공원

금속 체험 교실

▲편백공예체험

▲단풍

캐리커처

▲모바일 AR 스크립트 투어

▲백야단풍 시진관 등 다양하다.

축제 기간에는 장성의 농특산물

코너도 운영된다.

장성의 대표 농산물

물인 단감과 대봉을 비롯해 김밀뱅

이, 각종 발표식품, 아로니아, 전통

주, 반찬 등을 맛보고 구입할 수 있

다.

개막 하루 전인 26일 전야행사로

황룡강 공설운동장 주무대에서 ‘군

민화합노래자랑’이 열린다. 장성군 민들의 노래실력 겨루기와 함께 초대가수 김혜연, 소희 한세일, 빛나라, 성민하 등의 공연과 불꽃놀이 쇼가 열릴 예정이다.

장성군은 지난해부터 관광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본격적인 단풍 절정이 예상되는 11월을 피해 조금 앞당겨 축제를 진행하고 있다.

축제위원회 관계자는 “백양 단풍은 놓칠 수 없는 가을의 백미로 손꼽히고 있다”며 “많은 분들이 색이 고운 붉은 애기 단풍과 음악을 즐기고, 맛있는 장성음식도 맛보고 행복한 추억을 만들어가기 바란다.”고 말했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올 가을은 황룡강 노란꽃으로 시작해 백양 붉은 단풍으로 마무리될 것”이라며 “많은 분들이 오셔서 가을이 선물한 화려한 정취를 엘로우시티 장성에서 느껴보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장성 백양사는 다른 지역의 단풍보다 잎이 작고 색이 고운 애기 단풍으로 널리 알려져 해마다 많은 관광객들이 단풍과 산행을 즐기는 명소로 전국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장성=빈정모 기자

당신이 있어 참 다행입니다!

가족처럼, 친구처럼 오래오래~

우리 결엔 언제나

우체국예금, 우체국보험에 있습니다.

쓸때마다 즐거운 우체국 체크카드,

든든하게 힘이 되는 우체국보험,

행복한 꿈을 주는 우체국예금까지

이제, 우체국에서 만나세요~

언제나 내곁에 ~

우체국 예금
우체국 보험